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①

# 정수행을 해야만 선근공덕 발현

行者若能如是從假入空觀中善修止觀者 則於坐中心明淨 爾時當有種種善根開發 應須識知

지관 정수행을 닦을 경우 과거 전생에 쌓았던 선근이 어떻게 발현될 것일까. 제7장에서는 갖가지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만일 전생에 지관을 닦지 않았다면 선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행하는 이라면 선근 공덕의 모습이 발현될 때 반드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낱낱이 식별해야만 한다.

여시(如是)라는 두 글자는 앞의 정수행 가운데서 닦았던 갖가지 지관수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수행을 하려면 속제 가를 따라서 진제 공으로 깨달아 들어가야만 한다. 즉 허망한 유위법으로 부터 차별적인 모습이 없는 진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본래 지관은 번다하여 삼종지관(三種止觀)과 이십오륜(二十五輪)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수행방법은 똑같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수행했던 것은 가운데 수습하는 지관과 경계인연을 마주하고 닦는 지관이 속제 가를 따라서 진제 공으로 들어가는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과 상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홀출로 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홀출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홀통한 방편으로 지관을 수습한다는 의미이다. 수행자 가운데 이와 같이 종가입공관을 수습하는 자는 편안하게 앉아 공부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명하게 되고 청정함을 얻게 된다. 이 때 갖가지 선근이 개발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안된다.

今略明善根發相 有二種不同 一外善根發相 所謂布施 持戒 孝順父母 尊長 供養三寶 及諸聽學等善根開發 此是外事 若非正修 與魔境相滯 今不分別 선근이 일어나는 모습은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선근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선근의 모습이다.

우선 밖으로 보고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근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겠다.

앉아서 지관을 닦을 경우 평소와 달리 나지 않던 좋은 생각이 일어나 착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홀연히 환희심이 생겨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재물을 보시를 하기도 하고, 수행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설법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갖도록 힘을 실어 주기도 한다. 이것은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선근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과거 전생에 보시를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선근 공덕은 과거 전생에 수행했던 결과물 허망한 유위법서 진공으로 깨달아 들어가야

또는 홀연히 계율을 지녀야 되겠다는 환희심이 일어나 대승·소승계를 등 갖가지 계율을 지니게 된다. 이것도 전생에 계율을 지니는 선근을 닦았기 때문에 지관을 닦음으로써 전생의 선근이 발동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면서 산보에 공양하고, 불경을 독송하고 경전강의를 들으며 예배하는 등의 선근의 모습이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근은 겉으로 드러난 일체사상(事相)법문이며, 발현한 선근은 과거 전생에 훈습으로 수행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처럼 외적으로 발현한 선근들은 내적으로 마음속에서 발현하여 수행공부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군의 경계와 서로 뒤섞이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

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겠다.

二內善根發相 所謂諸禪定法門善根開發 有三種意 第一明善根發相 有五種不同 一息道善根發相 行者善修止觀苦身心調適 妄念止息 因是自覺其心 漸漸入定 發於欲界及未到地等定 身心泯然 空寂 定心安穩 於此定中 都不見有身心相貌

두 번째로 안으로 내 마음속에서 속세의 선근이 일어난 모습이다. 이는 모든 선정법문이 참선 삼매에서 선근으로 개발된 것으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삼매 속에서 선근이 일어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마구니 경계를 쫓

지 않기 위해 선근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관 수행을 통해 발현한 선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삼매 속에서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은 다섯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호흡관을 닦음으로써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중생이 탐심이 많기 때문에 부정관을 닦음으로써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중생이 진심이 많은 까닭에 자비관을 닦음으로써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고, 네 번째는 모든 만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 여러척은 처심이 많이 생기므로 인연관을 닦음으로써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고, 다섯 번째는 엄불공덕으로 선근공덕이 발현하는 모습이다.

첫 번째 호흡관을 닦음으로써 발생하는 선근의 모습은 수행자가 단정한 마음으로 정좌하여 지관을 닦음으로써 기

운과 호흡을 조화하는 것이다. 호흡을 잘 조절해서 지관을 닦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쾌적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는 콧구멍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온해지고 거칠고 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들뜬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고르게 되면 점진적으로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들어가 욕계정(欲界定)인 미도지정(未到地定)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욕계정은 우리가 현재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선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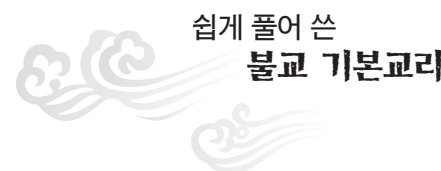
‘욕(欲)’에는 정욕, 색욕, 식욕, 음욕 등 네 종류가 있다. 밑으로 아버지욕으로 부터 제일 꼭대기인 제육타화자재천(第六他化自在天)에 이르기 까지 모두 남자가 서로 뒤엎어 욕구를 떠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욕계라고 말한다.

가령 지관을 수식관으로 닦는다면 모든 망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몸이 마치 그림자나 구름처럼 텅 비고 청정하여 광명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보여 그것을 잊지 못하므로 몸은 뜬 구름과 같고 마음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되어 안과 밖이 경쾌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를 두고 욕계정의 모습이라고 한다.

욕계정의 모습으로부터 더욱 노력하여 진입보하게 되면 일심이 응연 담적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있는 모습을 전하여 무상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홀연히 텅 비고 특 터 침상에서도 잠자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태허공과 같아 적연하고 안온하여 내 몸과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번뇌의 장애는 오히려 그대로 있게 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 연생론(緣生論)

인연(因緣)이라는 두 글자는 불교에서 우주와 인생에 대해 그 실상을 인식하고 그 기본원리를 규정한 단정적인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 즉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이 세상 만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능가경’에서는 인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일체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간의 일체사물은 그 모두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이 생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계성이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여기에 다시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인 관계성보다 세력이 약한 부분이 외부 보조요건으로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연, 증상연(增上緣)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하나의 기업이 일어나려면 기업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의 의지와 능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업무조건과 사회의 수요(需要)적인 모든 측면들이 보조요건으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직접원인이 되는 ‘인’과 보조요건인 ‘연’이 동시에 한 덩어리로 화합해야만 비로소 기업이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일체사물은 모두 인연의 관계성에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도 절대 독립된 개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의 현상적인 존재야말로 바로 인연관계성의 발현이며, 사물의 훼손과 소멸 역시 인연관계성의 변천과 소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이라는 의미는 ‘관계’라는 두 글자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립적인 현상계의 성립은 모두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의타기성으로만 존재하며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떠나면 어떤 사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전체를 중중무진한 법계연기(法界緣起)로 논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호관계성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법칙을 두고 ‘인연으로 생긴 법(因緣所生法)’ 또는 ‘연기론(緣起論)’이라고 합니다.

인연을 요약하면 세 단계로 크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자체원인을 따라서 생기는 측면과, 현상사물은 본질의 이치를 의지해서 성립하는 측면과, 모든 존재는 공을 의지해서 성립하는 측면입니다. 이를 두고 삼중인연(三重因緣), 즉 세 겹으로 성립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정리=張如舟

<p><b>불자 정보</b> 699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신구마 고속도로 IC에서 절에서 25분거리</li> <li>● 경부고속도로에서 25분 인양에서 25분</li> <li>● 법당 21평, 산신당, 칠성각, 묘사채, 컨테이너 박스 1개</li> <li>● 대지 321평 ● 가액: 3억</li> </ul> <p><b>010-2382-2004</b></p>	<p><b>암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시 연산 3동 지하철, 버스정류장 3분거리</li> <li>●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삼선단, 영가단</li> <li>● 방2, 주방, 옥실구비, 시설완벽</li> <li>● 보증금 500만원 / 월 25만원 시설비 1천만원</li> </ul> <p><b>010-3832-0016</b> <b>051)851-2337</b> (12시 이후 통화 가능)</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마산시 진전면</li> <li>●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 30분거리</li> <li>● 대지 600평, 법당 25평</li> <li>● 삼존불, 묘사채 30, 20평</li> <li>● 마당, 연못</li> <li>● 가액: 3억(음자가능)</li> <li>●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li> </ul> <p><b>010-3996-2035</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주시내 15분거리</li> <li>● 종교부지+대지 약 700평</li> <li>● 신축 2년(사찰허가)</li> <li>● 법당 15평, 묘사 30평</li> <li>● 컨테이너 1동, 실외 화장실 2 넓은 주차장</li> <li>● 시내버스 절 앞 정차</li> <li>●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li> <li>● 가액: 3억 8천만원</li> </ul> <p><b>019-357-7373</b></p>	<p><b>사찰 임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li> <li>● 대지 220평</li> <li>● 건물 1층 묘사채 47평</li> <li>●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li> <li>●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li> <li>● 가액: 5억</li> </ul> <p><b>011-9114-9935</b></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경주</li> <li>● 영구적인 최고의 수행참선도량</li> <li>● 큰방, 작은방, 거실, 배란다, 현대식주방, 옥실 20평</li> <li>● 가액: 4000만원</li> <li>● 비구니스님만 가능</li> </ul> <p><b>010-3142-6306</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김해시 지내동</li> <li>● 평수: 600평</li> <li>● 대웅전 25평, 산신각, 용왕각 각각 25평</li> <li>● 종각: 5평, 묘사채: 30평, 창고 및 큰방 하나</li> <li>● 사찰내 주차장 확보</li> <li>● 가액: 13억</li> </ul> <p><b>010-5466-7813</b> <b>055)322-8595</b></p>
<p><b>서울에서 가장 큰 법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종로 송인동</li> <li>● 전세 5억(시설비 포함)</li> <li>● 사찰: 전통형식 4,5포</li> <li>● 법당 40평</li> <li>● 묘사채 100평, 화장실 3개</li> </ul> <p><b>010-8577-1811</b></p>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마포구 대흥동</li> <li>● 지하철 2호선 이대역 5분출구 60m거리, 교통아주 편리함</li> <li>● 4층 건물 중 3층(25평)</li> <li>● 입주 즉시 법회 가능함</li> <li>●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li> </ul> <p><b>02)719-7709</b> <b>011-212-7709</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 금정구 두구동 근교</li> <li>● 대지: 680제곱미터(약 210평)</li> <li>● 법당: 30평, 묘사채: 30평(+묘사채 20평)</li> <li>● 시설 완벽, 연못, 고급나무, 야생화 등 정원최고, 교통최고</li> <li>● 양도가는 답사후 결정</li> </ul> <p><b>055)372-3555 / 011-831-9667</b></p>	<p><b>제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b></p> <p><b>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b> 불교 상·제례 관련교육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하게 되는 전문직종입니다.</p> <p><b>교육기간중 장례관련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간 : 2008. 10. 21 ~ 2009. 6. 20 (8개월 과정, 총 160시간)</li> <li>◇ 교육시간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30분 매월 1, 3주 (토) 오후 4 ~ 8시</li> <li>◇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li> <li>◇ 모 집 : 선착순 40명(사찰 종무원 환영)</li> <li>◇ 등록금 : 80만원 (교재 지급)</li> <li>◇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역례학과(장례문화학과) 출신 석·박사</li> </ul> <p><b>수료후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내용 : (1)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2) 장례법규와 공동보건의학 (3) 장례 및 상주문화, 납골당, 자연장 (4) 장례 및 장묘시설 현장학습</li> <li>◇ 수료후 취업 및 활동 : (1) 사찰 상가봉사조직 운영 (2)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운영 및 관리 (3) 상조회사 행사, 관리, 홍보 (4) 장례식장, 장례유통, 운구업체, 화환업체</li> </ul> <p><b>“사찰, 신행단체에서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을 통하여 조직적인 상가봉사활동으로 신도 수 2배 증가 실현”</b></p> <p><b>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b> <b>부설 (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b></p>